

< 短 報 >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韓 柱 成*

본 연구는 소수민족이 이민국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나타낸다는 종래의 연구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해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미국·일본을 대상으로 해외동포의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구규모상 제1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상업이, 제2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제조업이 가장 특화된 직업이고, 제3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은 제1·2위 도시를 포함하는 각 지역 특화직업의 중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구규모상 제1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전문직종인 법조인, 의료인, 종교인, 교육자 등이 특화직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동포는 종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적인 바탕위에서 우리동포의 강한 교육열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어 인구규모상 상위도시를 포함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화이트 칼라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이다.

주요어 : 해외동포, 소수민족, 거주지 분포, 특화직업

1. 서론

1995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수는 약 500만 명으로 국내인구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볼 때에 우리 동포는 소수민족(ethnic minority)으로 중국의 경우 중국 인구(1990년 11억 3,187만 6천명)의 0.17%, 미국의 경우 미국 인구(1991년 2억 5,217만 7천명)의 0.66%, 일본의 경우 일본 인구(1994년 1억 2,503만 4천명)의 0.52%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거주 국가에서 인종차별이나 사회계층간의 대립, 사회문제의 발생원 등 매우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종래의 소수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이외에 이민과 대도시와의 관계에서는 소수민족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즉, 소수민족으로써 이민은 노동자는 도시재생의 원동력이 된다는 연구, 그리고 이민의 유입이 기존 주민의 직장을 빼앗는다는 이민 제한론은 불황때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된다는 관점의 연구(Muller, 1993)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오히려 이민 노동력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를 높여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민의 증가는 법률·회계·금융 등으로의 수요를 높이고 교원·경찰·공공(utility)부문 등을 증가시켜 지방 공무원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成田, 1995, 311).

종래 해외이민에 대한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학자 Kim(1984)과 지리학자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Lee(1992), 경제학자 Bates(1994) 등이 뉴욕을 중심으로 대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킨 우리나라 이민동포의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성공요인을 정리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 이민온지 오래된 노동력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의 도시 내부지역에서 재일동포가 활력을 갖고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공동체의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成田(1995)의 연구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및 일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본자료는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미국·일본을 대상으로 해외동포의 거주지역 분포를 파악하며, 끝으로 해외동포의 직업별 구성과 그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동포수가 출생에 의한 내생적 증가를 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출생과 이민의 유입에 의한 내생·외생적 증가를 하는 국가이다.

2. 한국의 해외 동포수의 추이와 국가별 분포

1970~1995년 사이의 해외 동포수와 체류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970년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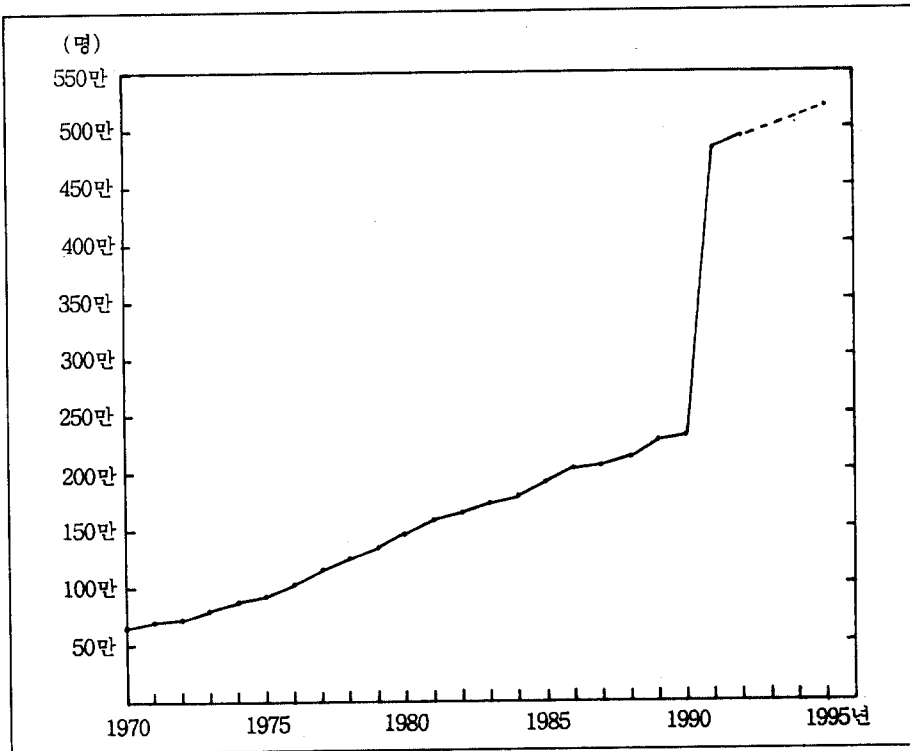


그림 1. 해외동포수와 체류자수의 추이

자료: 外務部(1995) 23쪽.

1995년 외무부가 발간한 『해외동포현황』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해외동포수의 추이와 국가별 해외동포의 분포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해외

의 동포수와 체류자수는 672,660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5,228,573명으로 25년간 7.8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27.1%의 증가를 가져왔다. 해외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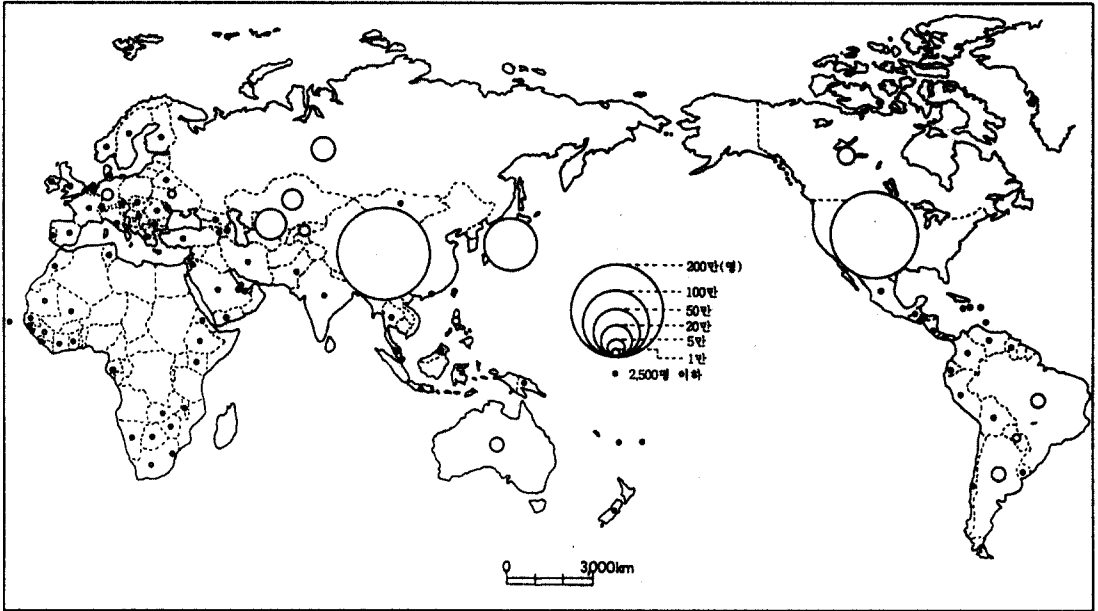


그림 2. 해외동포의 국가별 분포(1995년)

자료: 外務部(1995) 14~22쪽

수와 체류자수가 100만 명을 넘은 연도는 1976년 이고, 200만 명을 넘은 연도는 1986년이며, 1991년부터 해외 동포수와 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의 해외 동포수와 체류자수¹⁾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의 해외 동포수와 체류자수 중에서 해외 동포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4.4%로 체류자수는 적은 편이다.

한편 1995년 해외 동포수는 세계의 103개 국가에 4,938,345명이 분포하며(그림 2), 주요 거주국가는 중국이 해외 총동포수의 39.00%인 약 19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33.64%인 약 170만 명, 일본이 13.35%인 약 66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세 나라의 해외 동포수가 해외 총동포수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이들 세 나라의 해외 동포수가 많은 이유는 중국·일본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에, 미국은 1965년 이후 경제·정치적 이유로 해외이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1. 해외동포의 주요 거주국가(1995년)

순위	국가명	해외동포수	구성비(%)
1	중국	1,926,017	39.00
2	미국	1,661,034	33.64
3	일본	659,323	13.35
4	우즈베키스탄	220,000	4.45
5	러시아	106,852	2.16
6	카자흐스탄	103,315	2.09
7	캐나다	72,241	1.46
8	브라질	37,952	0.77
9	오스트레일리아	32,694	0.66
10	아르헨티나	32,000	0.65
11	독일	17,494	0.35
12	키르기스스탄	17,460	0.35
13	파라과이	9,125	0.18
14	우크라이나	8,669	0.18
15	필리핀	7,000	0.14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16	뉴질랜드	5,226	0.11
17	스페인	3,767	0.08
18	영국	2,433	0.05
19	벨로루시	2,000	0.04
20	칠레	1,346	0.03
기타		12,397	0.25
계		4,938,345	100.00

자료: 外務部(1995) 14~22쪽.

3. 재중·재미·재일동포의 형성과정과 거주지 분포 특성

1) 재중동포의 형성과정과 거주지 분포 특성

재중동포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尹豪의 기존연구(1995)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韓민족 이주는 청나라 말기인 19세기 중엽 전후부터 시작되었다. 1677년 청나라가 백두산과 압록·두만강 이북의 천여 리 되는 지역을 清朝의 발상지라 하여 封禁하여 入植, 개간을 금지하고 특히 다른 민족의 전입을 엄금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남안의 주민들이 강을 넘어 잠입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 초기에는 “朝耕歸慕”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春求秋去”라는 “潛在型”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들 주민들은 주로 개간을 목적으로 이동하였는데, 1845년부터는 강을 건너 개인적으로 개간하는 주민이 늘어나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사는 주민의 대량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860~187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의 수해와 가뭄, 농작물의 해충 등의 피해로 주민들이 강을 건넌 것이며, 19세기 중엽부터 많은 이재민이 연변(延邊)에 전입하게 되었다. 1867년에는 훈춘(琿春)과 러시아 국경일대에 조선에서 이주해 온 이재민이 1,0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1894년 해룡(和龍)일대에는 약 6,000호에 달하는 한민족 개간민이 살고 있어 두만강 北岸에는 2만여 명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1904년 연변에는 이미 5만여 명이 거주하였고 1909년에는 18만 명이상이 거주하였다. 이주초기 대부분의 한민족은

통화(通化), 신빈(新賓), 용정(龍井), 화룡 등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정착하였다. 1870년 압록강 연안의 조선족 거주촌은 28곳에 달하였고 1880년에 지안(集安) 한곳에 1만 천여호가 살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입 초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부근에 자리잡았던 한민족은 점차 연변,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중국 동베이 지역에 한민족 사회가 널리 형성되었다(尹豪, 1993, 20~21).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대륙정책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인구가동을 가속화시켰는데, 1910~1942년 사이에 중국에서의 한민족은 20만~150만 명으로 7.5배 증가하여 32년간 연평균 증가율 6.49%를 넘었으며, 1938년에는 동베이 지방의 한민족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표 2). 그 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한민족의 인구는 1953년에 약 111만 명으로 1942년에 비하여 감소하여 중국인구의 0.19%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에는 0.17%를 차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한민족의 인구증가는 세 차례의 절정

표 2. 중국 동베이 지방 한민족 인구수의 추이 (1910~1942년)

연도	인구수(명)	연평균 증가율(%)
1910	202,070	.
1915	282,070	6.90(1910~1915)
1920	459,427	10.25(1915~1920)
1925	531,973	2.98(1920~1925)
1930	607,119	2.68(1925~1930)
1935	826,570	6.37(1930~1935)
1940	1,309,053	9.63(1935~1940)
1942	1,511,570	7.46(1940~1942)
1953	1,111,274*	.
1964	1,348,594*	1.94(1953~1964)
1982	1,765,204*	1.72(1964~1982)
1990	1,920,597*	1.10(1982~1990)

주: 1953년 이후의 인구는 중국 전지역의 한민족 인구수임. 자료: 尹豪(1993) 21, 23쪽.

기가 있었다. 제1차 절정기는 1954~1958년 사이로 출산율은 3.5~4.0%이었고 자연 증가율은 약 3%였으며, 제2차 절정기는 1962~1965년 사이로 출산율은 3.0% 전후로 자연 증가율은 2%였다. 그리고 제3차 절정기는 1968~1972년 사이로 출산율은 2.5%, 자연증가율은 1.9%였다(尹豪, 1993, 22~24).

중국에는 漢族을 제외하고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1953년 중국의 한민족은 111만 1,274명으로 지린(吉林)성에 68.0%가 거주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헤이룽장(黑龍江)성이 20.8%, 랴오닝(遼寧)성이 10.4%를 차지하여 이들 3개 성이 한민족 전체 인구의 99.2%를 차지하였다. 한편 1995년에 중국 동포수는 192만 6,0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린성에 61.5%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그 다음으로 헤이룽장성에 23.6%, 랴오닝성에 12.0%가 거주하여 이들 3개省去 중국 동포수의 97.1%가 거주하여 지린성의 구성비가 낮아지고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적은 수이지만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3).

1990년 중국 지린성의 연변주에는 한민족이 82만 1,479명으로 연변주 총인구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한민족의 분포는 용정시에 18만 3,99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연지(延吉)시에 17만 7,547명, 화룡현에 13만 6,894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인 199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의 뚱베이 3개 성에서는 1880년대 말 북간도 이민행렬과 같이 한인 농촌에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으로 제2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 한민족 사회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2) 재미동포의 형성과정과 거주지 분포 특성

재미동포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朴順湖의 기존 연구(1992)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사는 미국 이민법이 개정된 1965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표 3. 재중동포의 주요 거주지 분포의 변화(1953~1995년)

순위	市·省·自治區名	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		1995년	
		동포수	구성비 (%)	동포수	구성비 (%)	동포수	구성비 (%)	동포수	구성비 (%)	동포수	구성비 (%)
1	지린성	756,026	68.0	866,627	64.3	1,104,071	62.5	1,181,964	61.5	1,181,964	61.5
2	헤이룽장성	231,510	20.8	307,562	22.8	431,644	24.5	452,398	23.6	452,398	23.6
3	랴오닝성	115,719	10.4	146,513	10.9	198,252	11.2	230,378	12.0	230,378	12.0
4	내몽골자치구	6,705	0.6	11,280	0.8	17,580	1.0	22,641	1.2	22,641	1.2
5	베이징시	384	0.03	2,909	0.2	3,905	0.2	7,689	0.4	7,689	0.4
6	허베이성	68	0.01	1,376	0.1	1,737	0.1	6,250	0.3	6,250	0.3
7	산둥성	122	0.01	512	0.04	939	0.05	2,830	0.2	2,830	0.1
8	후베이성	17	0.0	112	0.01	652	0.04	1,874	0.1	1,874	0.1
9	톈진시	108	0.01	-	-	816	0.05	1,788	0.1	1,788	0.1
10	허난성	-	-	246	0.02	545	0.03	1,099	0.06	1,099	0.1
	기타	6,150	0.06	11,457	0.8	5,063	0.3	11,686	0.6	11,686	0.6
	계	1,111,274	100.0	1,348,594	100.0	1,765,204	100.0	1,920,597	100.0	1,920,597	100.0

주: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수가 같은 것은 외무부의 해외동포수 파악이 중국의 제4차 인구조사(1990년 7월 1일 실시)를 인용하였기 때문임.

자료: 尹豪(1993) 26쪽; 外務部(1995) 112쪽.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기 이민자들의 인구적·사회적·경제적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초기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교육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남자들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소위 “미국 사회내의 채류자”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내 도시에서 거주하였고, 사회계층도 중류이었고,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삶의 터전을 미국내에서 영구히 가지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朴順湖, 1992, 437).

(1) 하와이 이민 개척자(1903~1905년)

1892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약(Korean-American Treaty)을 맺음으로써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 조약문 중에서 “미국에 이주하는 한국인은 미국내의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으며, 또 토지와 가옥을 구입, 임대, 건립할 수 있다”라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약에 의해 최초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03년에 이루어져 1903~1905년 사이에 이민자수는 7,460명으로 이 중 남자가 90.8%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하와이에 이주하였다. 당시 하와이로의 이민의 주된 이유는 첫째, 한국의 심각한 경제상황이다. 외세의 강압에 의해 국가의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농업과 수공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1901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민을 더욱 촉진시켰다. 둘째,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의 경영자들이 일본인 노동력을 견제하고 중국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한국인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입장에서는 영어의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노동자를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농장의 노동력 부족을 대처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이민이 미국 본토로 이민을 가지 않고 하와이에 이민을 간 이유는 한국내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1916년에 약 1,200명의 한국 이민자가 한국으로 되돌아왔으며, 약 2,000명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벼농사 노동자 또는 철도건설 노동자로 이

주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한국 이민자의 성격을 이질성(heterogenity)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출신지, 경력²⁾이 다양하였고, 20대 미혼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 이민은 1905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朴順湖, 1992, 438-439).

(2) 망명자와 “사진신부” 이민(1906~1924년)

이 시기에는 약 2,000명의 한국인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는데, 이주자들은 망명자와 “사진신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약 2,000명의 한국인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약 900명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하여 미국에 정치적으로 망명하였는데, 이들 정치적 망명자들은 주로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인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로 호텔, 식당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그후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나서는 자영업에 종사하였다(朴順湖, 1992, 439).

“한국인 사진신부”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미국 이민집단의 하나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03~1905년 사이의 이민자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약 10%에 지나지 않아 많은 미혼 남자 이민자들은 결혼상대를 찾게 되었으나, 1905년 한국 정부의 미국 이민금지조로 한국인 신부를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 그후 식민지화가 된 후 일본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항일운동의 정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와 결혼을 조건으로 한 젊은 여자들의 이민을 허락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진을 통하여 배우자를 결정하고, 한국 이민자의 신부로서 이민을 허락받은 이른바 “사진신부”이다(朴順湖, 1992, 439~440).

이 기간에 약 950명의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그리고 약 100명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세크라멘트로 이민을 갔다. 이러한 “사진신부”와의 결혼으로 독신 남자 위주의 한국인 이민사회는 점차 가족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특히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 농장으로부터 호를

루 시내로 거주지를 옮기게 됨과 동시에 직업도 육체노동에서 그 동안의 축적자본을 기반으로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영세제조업, 식료품점, 세탁소 등 자영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924년 동양인 배제법(Oriental Exclusion Act)이 미국 국회에 통과되므로써,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은 완전히 금지되었다(朴順湖, 1992, 440).

1910~1920년 사이에 하와이에 거주한 한국인 수는 1910년에 4,533명으로 하와이 총인구수(19만 1,909명)의 2.4%이었으나 1920년에는 4,950명으로 총인구수(25만 5,912명)의 1.9%로 감소하였다.

(3) 해방 이후부터 미국 이민법 개정까지의 이민 (1945~1965년)

동양인 배제법으로 약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함으로써 재개되었다. 즉, 1948년과 1949년의 미국 이민자수는 각각 46명과 40명이었다. 그러나 1950년의 인구 센서스에는 한국인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의 정확한 이민자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945년의 미국내 한국 이민자 총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었다(朴順湖, 1992, 440).

그러나 1950년부터 1965년 사이의 한국인의 미국 이민자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인 이민자수의 증가요인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1945년에 “戰爭新婦法”(War Brides Act)과 1946년에 “美軍 約婚女法”(G.I. Fiances Act)이 제정됨으로써 6·25전쟁 때에 미국 군인과 결혼 또는 약혼한 한국 여자들이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52년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는 비할당 지위(nonquota status)가 부여됨과 동시에 “동양인 배제법”이 폐지되었다. 더욱이 아시아-태평양 제국에 대하여 국가별로 100명씩 쿼타를 할당하였다. 셋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불안정한 경제·정치적 상황과 제2의 6·25 전쟁의 발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일

부의 중산층이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부터 15년 사이의 총이민자수는 약 1만 5천명으로 1950년까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 또 이민자 이외에도 일시 방문자, 정부사절단, 유학생 등 비이민자들의 출입도 빈번하게 되어 1950~1964년 사이에 2만 7천명 이상이 미국에 입국하였다(朴順湖, 1992, 442~442).

표 4. 미국내에서의 한국인 이민자의 수 (1950~1964년)

연도	입국 상태		계
	이민	비이민	
1950	10	335	345
1951	33	187	220
1952	127	808	935
1953	115	1,111	1,226
1954	254	1,270	1,524
1955	315	2,615	2,930
1956	703	3,552	4,255
1957	648	1,798	2,446
1958	1,604	1,995	3,599
1959	1,720	1,531	3,251
1960	1,507	1,504	3,011
1961	1,534	1,771	3,305
1962	1,538	2,112	3,650
1963	2,580	2,803	5,383
1964	2,362	4,068	6,430
계	15,050	27,460	42,510

자료: 朴順湖(1992) 441쪽.

이 시기의 한국인 미국 이민자는 크게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자가 남편의 귀국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소위 말하는 “韓國人 戰爭新婦”(Korean war brides) 집단으로, 이에 속하는 이민자수는 6,423명으로 가장 많은 그룹이며, 친족 중심의 연쇄 이민의 기초를 만든 하나의 한국인 사회집단이기도 하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역시 6·25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전쟁 고아의 입양”을 들 수 있다. 1953년과 1957년에 전쟁이 발발하였던 지역의 어린이

들을 위하여 미국에서 “救濟法”(Relief Act)이 제정되었다. 특히 1957년의 구제법은 한국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약 5,500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이상의 두 그룹은 미국인 가정과 직접적으로 이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朴順湖, 1992, 442).

세번째는, 미국 입국 당시에는 비이민자의 신분이었으나 입국 후에 이민자격을 취득한 그룹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간 중에 약 3만 명에 달하는 비이민 자격의 입국자의 일부라고 하겠다. 이들이 미국내에 정착하는 대표적인 과정을 보면, ①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여 투자사증(investment visa)을 취득하였다. 그후 2~3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를 고용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②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내에서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①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중산층, 즉 실업인, 퇴직한 고급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의 이민동기로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한 상황을 들 수 있겠다.

한국에 있어서 중류층 이상이 중심인 세번째 그룹은 미국내 한국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성격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1965년 이후의 친족중심 이민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 즉, “이민의 씨앗”(seed migrants)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朴順湖, 1992, 442~443).

(4) 후반기 이민(1965~현재)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수적인 팽창과 함께 그 성격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한국내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구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해외 이민정책을 채택하였다. 또 간접적으로 해외 교포들의 성공 사례를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해외이민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62년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

환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시는 전후 베이비 붐(1953~1960년)을 억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즉, 1970년에는 이미 그 당시에 태어난 여자들은 대부분 가임연령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둘째, 불안정한 정치상황이 중산층의 이민을 촉진시켰다. 제3공화국 이후 언론, 출판, 집회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하였고, 또 반체제 및 사상범은 엄격하게 처리되었다. 셋째,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어 종래의 쿼터 시스템이 폐지되고 매년 한 국가로부터 2만 명씩 혹은 총계 2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이 개정된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과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 배우자, 부모 그리고 약혼자들은 국가별 수적 제한과 관계없이 이민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별 미국으로의 이민자수는 2만 명을 넘을 경우도 있다. 실제 1965~1988년 사이의 연평균 한국인 이민자수는 24,444명이었다.

1980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35만 4,529명으로 1970년의 7만 598명에 4배에 달하였다. 또 1965~1988년까지의 한국 이민자수는 56만 2,213명으로 1988년 현재의 미국내 한국 이민자의 약 85%가 1965년 이후의 이민자들이다(朴順湖, 1992, 443).

표 5. 재미동포의 거주지별 분포(1995년)

순위	주 이름	동포수	구성비(%)
1	캘리포니아	558,923	33.6
2	뉴욕	194,443	11.7
3	뉴저지	150,370	9.1
4	일리노이	116,492	7.0
5	텍사스	83,991	5.0
6	워싱턴	79,950	4.8
7	펜실베이니아	61,000	3.7
8	버지니아	41,694	2.5
9	메릴랜드	38,193	2.3
10	조지아	37,484	2.3
	기 타	298,494	18.0
	계	1,661,034	100.0

자료: 外務部(1995) 141~196쪽.

재일동포의 거주지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50개 주 모두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요 거주지 분포를 보면(표 5),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 동포의 33.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뉴욕주에 11.7%를 차지하고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주에 9.1%, 일리노이주에 7.0%가 거주하고 있어 미국내 3대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주에 미국내 동포수의 52.3%가 거주하고 있다.

미국내 재일동포들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사업체가 있는 지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한국인의 사업체는 로스앤젤레스 중심지의 남서쪽 멕시코인파 혹은 흑인 거주지 또는 코리안 타운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택은 그랜데일, 샌퍼랜드 벨리 등 중류층의 移民族 혼재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또 뉴욕에서는 백인의 수가 우월하기는 하지만 移民族이 혼재하는 중하류층(lower middle class)의 거주지역인 퀸(Queens)의 북부지역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朴順湖, 1992, 447).

미국내 한국인들은 대도시 이외에 주요한 군사기지 지역(army post)에도 집중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의 Fort Hood(2,000명),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Fort Bragg(900명 이상), 오클라호마주의 Fort Sill(900명) 등이다. 1980년 현재 1만 5천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군사기지 또는 그 인접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군인의 부인과 그 부인의 친척 그리고 상당수의 혼혈아들일 것이다(朴順湖, 1992, 447).

3) 재일동포의 형성과정과 거주지 분포 특성

재일동포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曹賢美의 기존 연구(1995)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이주와 귀국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서 재일동포의 이주형태를 일본의 정책과 관련지어 4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10~1920년 사이의 토지조사사업³⁾기에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조선을 개국시키고 1905년에는 '보호국화'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에 의해 조선을 식민지화시켰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대량의 물자와 노동력이 일본의 본토로 이동되었는데, 이것이 재일동포의 형성과정의 시초이다.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가 성립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 일본정부는 토지조사령에 의해 소작농민의 경작권을 박탈하는 등의 일을 행하였다. 그 결과 농민의 생활은 궁지에 빠져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단신으로 거주이동을 한 경향이 많았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의 이주자수는 그 후의 産米増産계획기의 이주자수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약 4만명 정도였다(曹賢美, 1995, 58).

다음으로 1921~1930년 사이의 산미증식계획⁴⁾기에는 1920년대에 들어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이주자수는 산미 증산계획에 의해 농촌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재일동포수는 1년에 2만~3만 명씩 급증하여 1930년에 재일동포수의 인구는 약 40만 명에 달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자본에 의해 쌀을 증산하는 것으로 증산된 쌀은 한반도 내에서 필요한 양의 쌀까지도 일본으로 수송되고, 수리조합비가 한반도 농민들에게 새롭게 부가되었다(曹賢美, 1995, 59).

1931~1938년 사이의 중국대륙 침략기에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8년까지의 연간 이주자수는 후반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1930년까지에 비하면 대폭 증가하여 1938년에 약 80만 명이 되었다. 이 시기에 재일동포의 특징은 일본으로부터 가족을 초청하여 이주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주의 경향이 강하였다(曹賢美, 1995, 59).

1939~1945년 사이의 강제연행기에는 1939년 이후 국민동원계획이나 조선징용령 등에 의해 강제연행된 재일동포수는 더욱 증가하여 156만 명이나 되었으며 패전 때에는 240만 명까지 달하였다. 이와 같이 재일동포의 이주에는 일본의 정책에 의해 시기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강제연행 이전의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본인의 의사에 의했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에 의한 농촌정책에 따라 한반도의 농촌경제가 파탄된 것을 들 수 있다(曹賢美, 1995, 59).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마지막으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본에 거주한 많은 재일동포들이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1946년 3월까지 공식적으로 94만 명,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이 귀국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후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약 65만 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한반도와 일본을 왕복하다가 일본에 잔류한 사람,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귀국비용이 부족하여 잔류한 사람도 있다. 또 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어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는 일본에 잔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曹賢美, 1995, 59).

표 6. 재일동포의 주요 거주지 분포(1995년)

순위	都道府縣名	동포수	구성비(%)
1	오사카	179,171	27.2
2	도쿄	87,315	13.2
3	효고	70,411	10.7
4	아이치	53,911	8.2
5	교토	45,720	6.9
6	가나가와	31,687	4.8
7	호쿠오카	23,869	3.6
8	히로시마	17,952	2.7
9	야마구치	14,203	2.2
10	사이타마	13,205	2.0
11	지바	11,845	1.8
	기타	110,034	16.7
	계	659,323	100.0

자료: 外務部(1995) 29~74쪽.

재일동포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日本人'으로서 일본에 渡航하여 생활해 온 사람이나 그 자손으로 그 수는 1995년 659,323명으로, 이들은 일본의 47개 전 都道府縣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요 거주지 분포를 보면 표 6과 같다. 즉, 오

사카府에 재일동포의 27.2%가 거주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쿄都가 13.2%, 효고縣이 10.7%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3대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나고야는 아이치현의 동포수에 포함)에 재일동포수의 48.6%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쿄 이남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일동포는 오사카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쿠노쿠(生野區), 토세이쿠(東成區), 세이세이쿠(西成區)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타다오카마찌(忠岡町)인데, 중심부 지역은 일본인의 감소로 상대적으로 재일동포의 거주자가 많다. 한편 도쿄의 경우는 도쿄의 중심부에서 그 외연지역으로 분포하고 있다. 즉, 다이토구(台東區)에서 아라카와(荒川)·아시타테(足立)를 중심으로 수미다(墨田)·에토(江東)·카즈시카쿠(葛飾區)를 핵심으로 카와사키(川崎)·쓰루미(鶴見)에서 요코하마(横浜)시의 중심부에 걸친 지역을 부차적인 핵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사카와 도쿄 지역에 재일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은 1920~1930년대에 시가지 주변부에 속하였는데 많은 저소득층이 유입된 지역이었고 신흥 공업지역이었다(千葉, 1987, 63, 70).

4. 재중·재미·재일동포의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본 장에서는 자료관계상 재중동포의 직업구성은 동포전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재미·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직업구성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재중동포의 직업구성상 특성

1982년 재중동포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표 7), 농·임·목·어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 91만 7,906명⁵⁾의 57.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

표 7. 재중동포의 직업별 구성

직업	전문 기술적 직업 종사자	관리적 직업 종사자	사무 종사자	상업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농·임·목·어업 작업자	생산 운수 작업자	기타 종사자	계
%	10.2	3.0	2.2	2.7	3.4	57.6	20.8	0.2	100.0

자료: 尹 豪(1993) 35쪽.

음으로 생산 운수 작업자(20.8%), 전문 기술적 직업 종사자(10.2%)의 순으로, 중국의 산업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⁶⁾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미동포의 직업구성상 분포특성

미국내 동포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표 8), 취업자 약 165만 명 가운데 상업 종사자가 재미동포 전체 취업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19.0%를 차지하여 이들 두 직업에 종사하는 동포가 전체 취업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미국 전체의 산업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상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낮은⁷⁾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미국 동포의 직업별 구성비(1995년)

직업명	동포수	구성비(%)
상업 종사자	517,609	31.4
서비스업 종사자	313,586	19.0
제조업 종사자	57,827	3.5
농·수산업 종사자	27,139	1.7
의료인	23,501	1.4
종교인	19,156	1.2
교육자	11,315	0.7
예·체능인	7,736	0.5
법조인	3,768	0.2
기타 종사자	668,028	40.5
계	1,649,665	100.0

자료: 外務部(1995) 141~196쪽

주별로 특화된 직업을 특화계수(location quotient)에 의해 나타낸 것이 <그림 3>으로, 각 주의 재미동포의 특화직업은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특화직업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교육자·예·체능인이, 뉴욕주는 농·수산업·상업 종사자·종교인·의료인·법조인이, 뉴저

지주는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리노이주는 교육자·의료인·법조인·농·수산업 종사자·예·체능인·기타 종사자가 특화되어 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뉴욕·뉴저지주의 특화직업에서 상업 종사자가 다른 두 주에 비하여 특화되어 있는데 대하여 서부지역의 캘리포니아주는 제조업 종사자가, 일리노이주는 동부와 서부지역 특화직업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내 동포가 종사하는 직업은 도시에 따라 다양한데, 뉴욕의 경우는 청과물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점·주유소·햄버거점으로 자영업이 약 1/3을 차지하고 수익률도 다른 민족에 비하여 높다(成田, 1995, 310). 그런데 소매업이 일반적으로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포가 성공을 이룩한 이유를 Kim(1987)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 즉 새로운 민족적 자원, 뉴욕에 존재하는 경제적 기회, 민족적 조직을 들고 있다. 새로운 이민이 가족단위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2~3세대가 계속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은 청과점에서 필요한 야채씻기, 정리, 묶는 노력을 제공하고 수입금을 저축하고 유교정신의 바탕에서 가족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민족적 자원으로서 많은 이민자가 높은 교육을 받은 대도시 거주 경험자이고, 경제적 성공의 이념과 자신을 갖고 꽤 많은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차별이나 언어상의 강한 훈련부족으로 화이트 칼러가 되지 못하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청과물 판매점의 경영에 멈추지 않고 성공하면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였다.

뉴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기회는 교외화와 인종의 거주분리로 도시내부에 나타난 소매업 입지의 공백을 메우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민족적 조직으로서의 교회, 매스 미디어, 기업조합을 들 수 있다.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의 장소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연대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곳은 정보의 교환, 거래, 교섭의 場이고, 헌신·자만·근검절약·노력 등의 미덕을 강화하는 장이다. 뉴욕의 한국계 매스 미디어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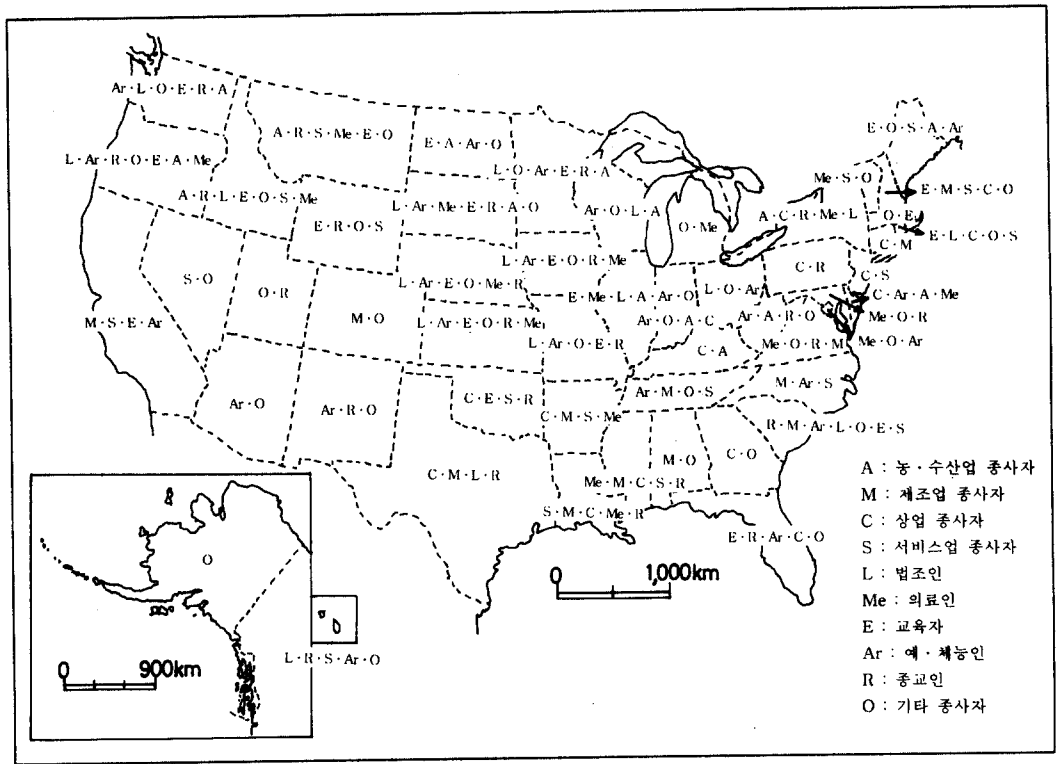


그림 3. 재미동포의 주변 특화직업의 공간적 분포(1995년)

로서 6개의 일간지, 3개의 주간·월간지, 한 개의 TV방송국, 3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족적 결함과 그 강화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업조합은 업종과 지역별로 나누어지고 법률, 세금,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조직과의 연결·협조와 한국인의 권리옹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成田, 1995, 312).

3) 재일동포의 직업구성상 분포특성

재일동포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총 종사자수 가운데 6.8%가 상업에 종사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종사자수가 많다(표 9). 이를 일본 전체의 산업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모든 산업에서 그 구성비가 낮다^{B)}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타 종사자의 구성비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표 9. 재일동포의 직업별 구성비(1995년)

직업명	동포수	구성비(%)
상업 종사자	41,734	6.8
서비스업 종사자	36,401	5.9
제조업 종사자	32,743	5.3
예·체능인	6,236	1.0
의료인	3,204	0.5
교육자	1,794	0.3
농·수산업 종사자	1,379	0.2
종교인	479	0.1
법조인	75	0.1
기타 종사자	490,899	79.8
계	614,944	100.0

자료: 外務部(1995) 29~74쪽.

재일동포의 직업구성을 보면, 1930년에는 공업 일반이 28.6%, 토건이 24.6%, 운수 8.1%, 일용직 7.4%, 광업 6.3%로 불투칼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고차의 직업에 취업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종업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상용종사자가 많아지고 일용직에서 샌들·신발제조 등 부직으로 불안정한 취업자보다는 경영자·임원과 자영업자가 많아졌다(成田, 1995, 317).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의 직업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재일동포의 경우 기타 종사자의 구성비가 매우 높아 나머지 직업의 구성비가 10% 미만을 나타낸다. 또 재미동포는 상업·서비스업 종사자 구성비

영하는 것이다(成田, 1995, 318).

다음으로 특화계수 의한 특화직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면(그림 4), 오사카부는 기타 종사자와 제조업이, 도쿄도는 법조인, 교육자, 종교인, 의료인, 상업 종사자가, 효고현은 예·체능인, 제조업, 상업 종사자가 특화직업으로 나타나 오사카부·효고현과 도쿄도의 특화직업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부·현과 도쿄도 주변지역인 가나가와·지바현 및 히로시마·돗토리현에서도 현대산업의 생산형 사업인 제조업이 전개되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치현은 기타 종사자가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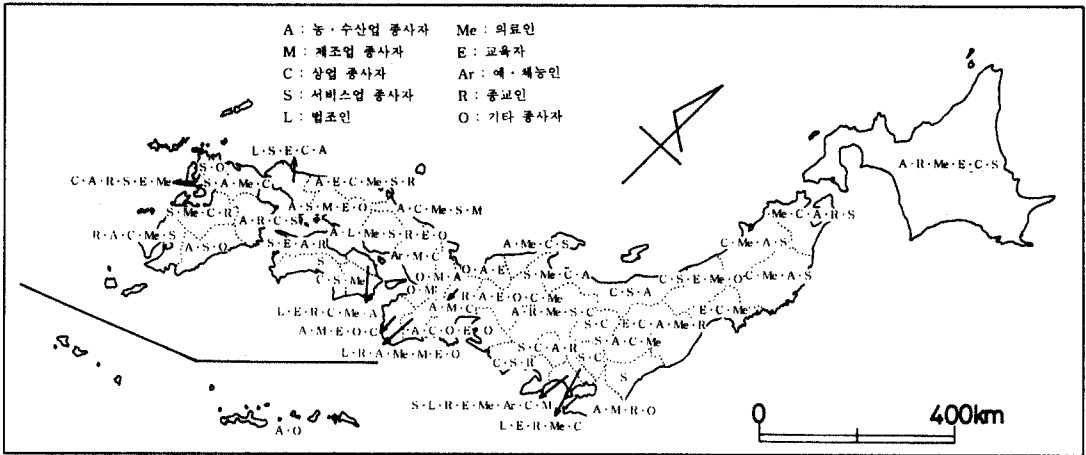


그림 4. 재일동포의 都道府縣별 특화직업의 공간적 분포(1995년)

가 매우 높고 의료인, 교육자, 농·수산업 종사자, 종교인의 구성비가 다소 높은데 대하여, 재일동포는 제조업 종사자, 예·체능인의 구성비가 다소 높다. 따라서 재미동포는 의료인 등 전문직, 고학력, 고임금형의 지적 서비스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하여 재일동포는 2차 산업의 생산과 상업·서비스업의 저변을 지탱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직업에 대해서는 음식업, 빠징꼬, 러브 호텔 등의 유흥업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데 대하여, 재미동포에 대해서는 밝게 신장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양국에 있어서의 민족(인종)차별의 강약을 반

화직업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상, 중국·미국·일본의 해외동포수가 약 80%를 차지하는 국가의 거주형성과 거주지역의 분포 및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중동포의 직업은 농·임·목·어업 종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재미동포는 상업 종사자가 약 1/3, 기타 종사자가 약 40%를 차지하며, 재일동포는 기타 종사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 해외동포의 직업구성비는 이민동기,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 소수민족에 대한 제약과 이민전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각 국가에 해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화직업구성은 인구규모상 제1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상업이, 제2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제조업이 가장 특화된 직업이고, 제3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은 제1·2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각 지역 특화 직업의 중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구규모상 제1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전문직종인 법조인, 의료인, 종교인, 교육자 등이 특화직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동포는 종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동포의 강한 교육열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어 인구규모상 상위도시를 포함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화이트 칼라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도시의 도심부가 쇠퇴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인 민족적 조직은 미국의 경우 교회, 매스 미디어, 기업조합인데 대하여, 일본은 지역상점회 등 지역공동체라는 점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사회와 그렇지 않은 일본사회와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註

- 1) 1991년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의 해외동포수와 체류자수는 각각 1,922,097명, 437,680명이다.
- 2) 부두 노동자, 군인, 단순 육체 노동자, 하인, 경찰, 나무꾼 그리고 광부들을 말한다.
- 3) 1910~1918년 사이에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사업으로 조선 총독부는 임야를 포함한 한반도 총면적의 50.4%에 상당하는 면적을 국유지화하였고, 자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을 소멸 또는 소작농의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농민의 개간권을 박탈하는 등 농민의 사회·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4)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농업부문의 식민지적 재편을 완료한 조선총독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

성장한 일본의 독점자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을 자국의 식량공급기지로 하기 위하여 1920년부터 3회에 걸쳐 행한 식민지 경제정책이다.

- 5) 한민족 인구의 52.0%를 차지한다.
- 6) 1991년 중국의 산업별 인구구성은 총취업인구 5억 8,364만명 중 농·임·수산업, 수렵이 60.0%, 제조업이 17.0%, 건설업이 4.3%, 상업이 5.3%, 운수, 창고, 통신업이 2.6%,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 0.4%, 공무, 서비스업이 6.9%, 분류불능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 7) 1993년 미국의 총취업자수는 약 1억 1,930만6천명으로 산업별 인구구성비는 농·임·수산업, 수렵이 2.7%, 광업, 채석업 0.6%, 제조업 16.4%, 전기, 가스, 수도업 1.3%, 건설업 6.1%, 상업 20.8%, 운수, 창고, 통신업 5.8%, 금융, 보험, 부동산업 10.9%, 공무, 서비스업 35.4%로 구성되어 있다.
- 8) 1993년 일본의 총취업자수는 약 6,450만명으로 산업별 인구구성비는 농·임·수산업, 수렵이 5.9%, 광업, 채석업 0.16%, 제조업 23.7%, 전기, 가스, 수도업 0.5%, 건설업 9.9%, 상업 22.4%, 운수, 창고, 통신업 6.1%, 금융, 보험, 부동산업 8.5%, 공무, 서비스업 22.3%, 분류불능이 0.6%로 구성되어 있다.

文獻

- 朴順湖, 1992, 韓國人の美國 移民에 관한 歴史的 考察, 靜觀 李炳坤教授 華甲紀念 論文集, 43 7~450.
- 外務部, 1995, 海外同胞 現況, 서울.
- 尹 豪, 1993, 中國 朝鮮族의 人口動向, 韓國人口 學會誌, 16(1), 19~36.
- 李永閔, 1996, 호놀룰루 初期 韓人集團의 居住地 形成과 正體性的 變容, 문화역사지리, 8, 10 5~121.
- 曹賢美, 1995, 在日 韓國人 高齡者의 就業狀況: 東京 都大田區의 場合, 經濟地理學年報, 41, 57~71.
- 최병목(1996): 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19(2), 139~173.
- 崔在憲, 1996, 國內 業體와 在美 韓人 業體間 貿易의 空間的 連繫 特性, 지리·환경교육, 4, 13

- 5~152.
- 千葉立也, 1987, 在日朝鮮・韓國人の居住分布: 第三世界をめぐるセグレーションの諸問題, 古賀正則編 昭和60, 61年度 文部省 科学研究費補助金(総合研究 A) 研究成果報告書, 45~84.
- 成田孝三, 1995, 世界都市における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への視点: 東京・大阪の「在日」をめぐって, *経済地理學年報*, 41, 308~329.
- Bates, T., 1994, An analysis of Korean-immigrant-owned small-business start-ups with comparisons to African-American-and nonminority-owned firms, *Urban Affairs Quarterly*, 32.
- Kim, I., 1984, The Korean fruit and vegetable business: a case study, in V. Boggs, et al. (eds.), *The Apple Sliced*, Bergin & Garvey, Massachusetts, 107~117.
- Kim, I., 1987, The Koreans: small business in an urban frontier, in N. Foner(ed.), In *New Immigrants 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219~242.
- Lee, Dong Ok, 1992, Comodification of ethnicity: the sociospatial reproduction of immigrant entrepreneurs, *Urban Affairs Quarterly*, 28.
- Lee, Youngmin, 1995, *Ethnicity toward Multiculturalism: Socio-Spatial Relations of the Korean Community in Honolulu, 1903~1940*, Louisiana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Muller, T., 1993, *Immigrants and the American City*, New York Univ. Press, New York.
- Shimizu, M., 1995, Residential relocation and friendship association of overstay foreign workers in Tokyo,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66(ser. B), 127~155.
- Yamamoto, K., 1993, Spatial segregation of ethnic minorities in German cities,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66(ser. B), 127~155.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Occupational Composition in China, United States, and Japan

Ju-Seong Han*

Summary

This study examines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occupational composition of Korean emigrants who live in China, United States, and Japan.

The data used are The Conditions of Korean Emigrants publish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95. Analysis method used this data are as follows: 1) to clarify the tendency and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 emigrants in each nation. 2) to grasp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of Korean emigrants in China,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many Koreans have lived. 3) to analyze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migrants.

The main finding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Farmer, forester, stock farmer, and fishery occupy over 50% of the employees of Korean emigrants in China; traders and other employees occupy about three-fourths of the employees of Korean emigrants in United States; and other employees occupy about 80% of the employees of Korean emigrants in Japan. Therefore, the ratio of occupational composition of Korean emigrants was influenced by emigration motiv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emigration nation, restrictive condition

for ethnic minority, and social status before emigration etc.

Specialized occupational composition in region where many Korean emigrants in each nation lived was that the highest specialized occupation in region including primary city in population scale is trader; the highest specialized occupation in region including secondary city is manufacturing employee, and the highest specialized occupation in region including third city has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city. And professional occupation such as lawyer, doctor, religionist and educator appeared to the region including primary city.

Finally, Korean emigrants in United States and Japan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inner city areas. And potential ethnic organization can be seen in church, mass media, and enterprise association in United States, but it can be seen in community shopping association in Japan. Because American society is based on Christianity but Japanese society is not.

Key Words : Korean emigrants, ethnic minority, residential distribution, specialized occup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